

# 발달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아주 특별한 사진전 -

## 디카로 바라본 세상



□ 지털 카메라를 매체로 발달장애청소년 9명과 비장애청소년 8명이 지난 2004년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전프라자 갤러리에서는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중하게 작업해온 작품들을 한자리에 전시한 아주 특별한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사진전 '디카로 바라본 세상'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가족,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기획하였다.




▲ 처음에는 장애청소년들의 행동때문에 힘들어하던 비장애 청소년들도,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진은 사진찍기 연습을 하고있는 동아리 활동모습.

회면을 가진 사진, 초점이 흔들린 사진 등 초기의 어설픈 사진부터 전문가의 작품 같은 후반기의 사진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관람자들은 작품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이룬 교육과 함께 다양한 야외 촬영실습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셔터누르기, on/off 하기 등의 기본 작동법도 서투르고 LCD 화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셔터를 눌러대던 발달장애청소년들도, 기본 방법을 숙지한 이후에는 회기가 거듭될수록 실력이 크게 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시각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진 짝의 모습에 힘들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갖던 비장애 청소년들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동아리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비장애청소년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으며, 비장애 청소년들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디카 동아리가 1회적인 활동이나 단편적인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장점을 찾아내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한다. 

자료제공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